

LCD 시장 회복세 전환 움직임

3월 32인치 TV용 가격 반등세 유지 ... PDP 모듈은 하락세

3월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LCD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TV용 LCD 패널 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가 최근 발표한 LCD, PDP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2인치 TV용 LCD 가격은 1월 314달러에서 3월 3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4월에는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300달러선을 유지했다.

특히, 32인치 LCD 가격은 5월부터 반등해 10월 320달러 이상으로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트북용 및 모니터용 LCD 등 IT 시장과는 달리 TV용 LCD는 TV 시장의 특성상 가격상승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뒤엎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20인치 와이드 TV용 LCD는 4월 가격이 176달러로 3월에 비해 3달러 올랐고 37인치, 40인치, 42인치 TV용 LCD 제품 등 거의 모든 사이즈의 TV용 LCD 제품도 5월 1-2달러 한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거나 하락 곡선이 완만해지는 등 가격이 2007년 연말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 노트북용과 모니터용 등 IT LCD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데 이어 TV용 LCD 제품까지 가격 반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LCD 시장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반등세는 노트북용 및 모니터용 LCD 시장과 함께 LCD TV 시장에서도 수요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타이완과 일본 등 주요 LCD 생산국의 LCD 생산설비 투자가 둔화돼 LCD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3월 대형 LCD 판매량이 2923만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42인치와 50인치 PDP 모듈 가격은 2/4분기에 월별 가격 하락률이 1/4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4월 42인치 PDP 가격은 427달러로 6.6% 하락했고 50인치 PDP 가격은 668달러로 6.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PDP 모듈은 6월까지 월 6-7% 이상 계속 하락할 것으로 디스플레이서치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2>